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수 및 간호부장 정년퇴임식 열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2일과 24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을 맞은 교수 및 간호부장의 퇴임식을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년을 맞은 교수는 비뇨기와 이광수 교수 그리고 심장혈관 내과 이명묵 교수, 성형외과 조상헌 교수들이며 객월희 간호부장이다.

교직원들은 그동안 병원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운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광수 교수는 비뇨기과장과 진료부장, 이명묵 교수는 병원장과 의료원장, 조상헌 교수는 성형외과장을 역임했으며 객월희 간호부장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및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장을 역임했다.



02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 자산경영법무최고위과정 총 동문회 '사회사업후원금 300만원 기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자산경영 법무 최고위과정 총동문회는 23일 본원에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에 써달라며 300만 원을 기부했다.

2012년부터 불우환자들을 위한 자비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후원 취지에 따라 본원은 지금까지 총3명의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03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청담사회복지관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구병수)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청담사회복지관을 찾아 독거 어르신과 양로원 어르신, 보육원 청소년 등 211명에게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봉사활동은 지도법사 증휘스님,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정형외과 양재준 교수와 연우회 회원 20명이 함께 하여 원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바라미를 기원하는 선물도 제공했다.

지금까지 연우회에서 실천한 자비나눔인 '아름다운 동행'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의료혜택을 주었고, 앞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선사 불자들은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자비나눔후원과 승가의료후원에 적극 동참하여 본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04 '경계의 소멸-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기관 이노베이션 전략' 특강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3일 27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규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 리더십 필수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시행되었고 '경계의 소멸-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기관 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제로 미래의 의료 서비스는 △의학기술의 발달 △환자 개념 재정립 △소비 방식의 변경 △의료융합 등에 의해 건강과 예방 중심으로 병원의 체계가 개편되고 환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 욕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의 중심을 언제나 환자인 소비자에게 고정시켜 고객만족을 넘어 환자 경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병원의 사명, 가치, 조직문화를 재검토하고 IT·BT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창조해야 하며, 최고 수준의 진료를 통한 가치 창조를 이룩하고, 병원을 치료의 공간으로 진화시키도록 공간과 프로세스를 혁신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감을 얻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병원이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소비자 중심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5 정월대보름 기념 "부럼제공" 이벤트

영양팀은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직원식당에서 '부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부럼'은 피부병의 하나인 '부스럼'과 소리가 비슷하여 정월대보름에 견과류를 먹으면 그 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하얀 생김 품습으로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6년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럼을 나누어주어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고, 한 직원은 "직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인사를 했다.

영양팀은 앞으로도 이벤트를 자주 열어 교직원들이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인공 46호

정형외과
조정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선택되고 많은 분들의 축하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너무 행복한 한주를 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축하해 주시는 '우리 병원' 직원들 덕분에 이곳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주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정형외과 외래 조정아 선생님입니다.

고액의 검사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가 사회사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의료비 지원 상담 전에 몇가지 서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형외과 외래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아 선생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위해 한 설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당황해했고 조정아 선생님은 순발력을 발휘해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사회사업실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외래 진료시간에 세세하게 응대해주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환자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쉴 틈 없이 환자를 면담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조정아 선생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사업실 강보라